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교회연합주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2. 고난받은 주를 보라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이 줄어들고 있는 세상에서 마음 편할 날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스스로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무겁다는 생각에, 아픔과 눈물의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신음 소리에 귀를 막고 살던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작은 일에도 비명을 질러대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제 투덜거림과 칭얼대는 말을 버리고 주님의 일꾼답게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존중하는 세상, 피조물들의 신음소리가 그친 세상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주십시오. 우리보다 앞서 희망의 길을 만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58:11
♠ 교 독 문	4. 시편 8편
♠ 영 광 송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대표기도	I. 임보람 선생 II. 방문성 장로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411.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봉독	I. 잠언 3:1-12
	II. 롬14:1-10
찬 양	하현철 권사
말 씬	I. 경건 생활의 기초
	II. 역지사지易地思之
거듭기도	장영숙 전도사 김기석 목 사 다함께

헌신의 찬송 523. 나 형제를 늘 위해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6. 성자의 귀한 몸(4)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욕심에 굴복하지 말고, 사랑의 실천을 위해 정성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보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다 함 께 : 아멘. 이제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불평과 불만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서 기쁨을 찾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레위기(1) / 말씀: 김재흥 목사	에베소서 강해(19)
기도: 이한림 집사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한상익 장로	박창운 권사

9월	영접위원	조병무	하현철	권혁순	안정숙	정경례	조항미
	헌금위원	김철수	이인웅	김인걸	조병주	김성자	허정윤

마음의 그레발

이젠 시대가 바뀌어 입사시험을 볼 때 외국어보다도 국어가 더 문제가 된다는 기사를 대한 적이 있다. 외국어는 능숙하게 구사하면서도 막상 우리말과 우리글에 서툴다니, 당혹스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다.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면 미숙해지는 것이 비단 우리말뿐만이 아니어서, 우리 얼과 문화 등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자기 정체성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레발’이라는 말은 여전히 우리에게 낯선 우리말이다. 우리말이 우리에게 낯설다니! 그리고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말이 얼마나 많은 것일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우리말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그레발은 집 지을 재목을 다듬는 일과 관련된 말이다. 보나 도리, 서까래나 기둥 등 집을 지을 때 쓰는 재목을 다듬기 위해서는 이른바 마름질을 하는데, 마름질이란 재목을 치수에 맞추어 베거나 자르는 일을 말한다. 재목을 연장으로 다듬는 일을 ‘바심’이라 하였다.

마름질을 하여 재목을 놓일 자리에 꼭 맞도록 자르기 위해 재목의 위아래에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재목의 위아래에 표시를 하는 도구를 그레라고 하였다. 그레발이란 그레로 그레질을 해서 재목을 자를 때 원래의 치수보다 조금 더 길에 늘려 자른 부분을 이르는 말이다. 그레발을 두는 것은 혹시 수평이 안 맞는다든지 하는 오차가 생겼을 때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처음부터 길이를 딱 맞춰 잘라 놓았다가는 나중에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질 수가 있다. 재목의 길이가 길면 잘라 쓰면 되지만 행여라도 재목의 길이가 짧을 경우 다른 나무를 이어서 쓸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레발은 사람 얼굴을 조각할 때 눈을 작게 시작하고 코는 크게 시작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될 것이다. 조각을 하다보면 손을 댈수록 눈을 커지고 코는 작아질 터이나, 조각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처음부터 눈을 크게 한다든지 코를 작게 시작한다면 이내 낭패를 당하게 되고 말 것이다.

처음에 재목의 길이를 조금 길게 잡았다가 나중에 필요가 없게 되어 그레발을 잘라 없애는 것을 ‘그레발을 접는다’고 하였는데(참조. 장승옥 지음, <<재미있는 우리말 도사리>>), 그레발을 접는다는 말이 귀하게 다가온

다.

우리 마음에도 그레발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한 치의 여유도 없이 팍팍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맞지 않을 경우 얼마쯤은 배어내도 좋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그레발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한결 풍요로울 수 있겠다 싶기 때문이다.

내가 밥상을 받지 않으면

옛날 어느 고을에 명망 높은 선비가 있었는데, 그는 학식이 높고 인품이 고매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다.

그 선비에게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매사에 비판적이며 남 험담하기를 좋아했다. 어느 날 선비가 그 친구를 만났더니 아주 상스러운 어투로 엉뚱한 일을 트집 잡아 선비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한동안 목소리를 높여 욕을 하던 그 친구는 선비가 욕을 들으면서도 잠잠히 있자, 선비의 심사를 더욱 뒤틀리게 하려는지 이렇게 말했다.

“내 말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보니 자네도 별 수 없군 그래.”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선비가 입을 열었다.

“자네는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대접을 하는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 대접을 하지.”

“만약 손님이 그 음식을 먹지 않고 돌아갈 경우 자네는 그 음식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야 물론 내가 먹어야지.”

그때 선비가 진지하게 말했다.

“오늘 자네가 나를 위해 차린 그 말의 성찬을 나는 먹지 않겠네. 자네가 차린 밥상이니 자네가 먹게.”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고,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대꾸하지 않으면 시끄러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비록 상대방이 나를 험담하고 비방한다 하여도 얼굴을 붉히거나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차분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내가 밥상을 받지 않는다면 밥상은 차린 이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보고 보여지기 위한 기도

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의 두 눈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길은 신의 영원한 신비를 꿰뚫고 하나님께 영광을 보아 알고 계십니다. 바로 이 눈으로 시몬과 안드레와 나다나엘과 레위를 보셨고, 바로 이 눈으로 하혈하는 부인과 나인의 과부와 소경과 절름발이와 나병환자와 굶주린 군중을 보셨고, 바로 이 눈으로 부유하나 슬픔에 잠긴 지배자와 호수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과 무덤에서 서러워 흐느끼는 여인들을 보셨습니다. 오 주님, 당신의 눈은 하나님의 한정 없으신 사랑과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 같아진 못 사람들의 끊임 줄 모르는 번뇌를 단번에 알아보십니다.

제가 당신의 두 눈을 바라보노라면 그 눈이 저의 가장 은밀한 자아를 꿰뚫어보는 뜨거운 불꽃만 같아 적이 놀라면서도, 그 불길은 정화하고 치유하는 불길인지라 위로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눈길은 더없이 매서우면서도 한없이 다정하고, 가차없이 발가벗기면서도 한없이 감싸주고, 지극히 날카로우면서도 한없이 자상하고, 더없이 심원하면서도 한없이 친근하고, 더없이 쌀쌀하면서도 한없이 은근한 눈길입니다.

그렇기에 갈수록 당신의 눈앞에 드러나고 싶고, 당신의 자비로운 눈길을 받고 살고 싶고, 당신의 주시(注視)하에 날로 강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싶어집니다. 주님, 당신이 바라보시는 것—하나님의 사랑과 인간들의 고통—을 저 또한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제 눈이 갈수록 당신의 눈, 상처 입은 마음들을 치유하는 그 눈을 닮아가게 하소서.

-헨리 뉴엔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성가대장	: 한상의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윤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 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훈동 김순복 전영웅 김시영 박홍엽 장영숙 김희진
 박홍재 노용래 차해심 김재흥 최희영 한인철 조윤숙 염혜영 임고운
 이은옥 김중수 이순정 구명자 오진훈 노순옥 고사일 최영선 김근종
 정옥영 박성수 김애경 박애순 백묘현 김윤수 박옥경 윤수진 이정규
 이인섭 박영희 윤미경 김지호 김지윤

월정헌금:

하현철 최성애 장재영 김재영 유증희 이재문 오현정 조항범 김승현
 김수진 정진경 허광식 김명순 문금석 정두리 이소순 조병주 김미순
 김 극 김종문 지명주 김정섭 김창경 이증자 박혜성 임수연 임원민
 이은자 노미향 권미정

감사헌금:

박성면 문인옥 박혜경 방 민 문금석 박창운 허정윤 최윤선 윤주원
 이인섭 박용남 무명1

생일감사헌금: 김춘려 박찬정 박영희 방 준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해 심	유 영 남	하 재 두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박 홍 엽	김 윤 수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임 정 자	이 춘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문 영 혜	박 경 원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진 정 속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김 순 복	백 묘 현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이 인 섭	박 효 선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이 기 분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속	이 순 정	장 혜 속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이 정 은	구 성 실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속	구 명 자	안 흥 속
나 사 렛	백 혜 속	정 옥 영	정 옥 영	김 희 우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이 영 란	유 혜 경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박 혜 경	조 항 미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교회연합주일** :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종파의 차이를 넘어 근본에 있어서 하나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2. **월례회** : 예배 후 제1·3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3. **교사교육** : 오늘 오후 집회 후에 갈등치유 전문가인 정주진 선생을 모시고 <기독교 평화 교육>에 대한 강의를 듣습니다.
4. **한가위** : 다음 주일은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따라서 1부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5. **환경교실** : 생명과 평화의 새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9월 말 경부터 시작할 환경교실에 등록하십시오.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 선교회에서 한 두 분 정도는 꼭 참석해주십시오.
6. **이전감사예배** : 기독교환경운동연대(사무총장: 양재성 목사)의 청과동 시대가 열렸습니다. 9월 15일 오전 11시에 이전감사예배를 드립니다.
7. **신앙실천** : 허리케인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재해의 고통이 대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 식당 봉사 : 빌립보 속

* 헌화 : 장혜숙 권사 (전영자 권사님 생신)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